

서울신대 “학교 아닌 박영식 교수가 창조론 다양성 거부”

이번 사안,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 유지에 관한 것
박 교수 주장,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 뿌리 해쳐
신학적 문제 수정 약속했음에도 기존 주장 반복

서울신대대학교(총장 황덕형) 법인이사 회가 ‘창조신학’ 등을 이유로 이 학교 박 영식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22일 서울 신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덕형 총장을 비롯해 김성원 조직신학부 주임 교수, 신대원장 최동규 교수, 법인이사 차주희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학교 측은 박 교수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소위 ‘유신진화론’으로 알려진 그의 창조신학 등이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은 개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인권 침해

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 유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본교의 입장”이라며 창조론과 관련해 “무에서의 창조를 부인하거나 창조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경적인 학문이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 교수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신진화론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고백을 파괴한다” 학교 측은 “그의 주장은 하나님은 오로지 자연선택을 통해서 창조하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연선택, 양육양식, 중간 대진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과정이며, 하나님은 외



서울신대 교수 및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부로부터 개입하지 않으시고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속의 신학적 성령이 기록하고 있는 구속의 신학적 구리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진화론을

빌려와서 창조를 설명함으로써 과학과 신학을 연결하려는 자신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기둥을 해치는 것임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교수가 주장하는 창조론의 내용은, 자연주의 무신론의 내용과 동일하며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박 교수는

자연진화론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나름 고백하고 있으나, 자연진화론자들은 동일론 자연진화론을 가지고 신이 없다는 무신론 논리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자연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창조론이라고 강변하는 박 교수의 유신진화론적 주장은 결과적으로 무신론적 과학의 손을 들어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며 “이런 자연주의 창조론이 기독교신학과 교회에 무슨 이익을 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특히 학교 측은 “박 교수는 창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만이 진리이며 창조과학, 지적설계론 및 성경중심의 신학적 관점들을 모두 거부하는 배타적인 입장을 전개해 왔다”며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학이 박 교수의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

라, 박 교수가 자신의 저서와 수업에서 창조 이해에 관해 학문적 다양성과 자유를 억압한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아울러 “성경교회 목회자들과 서울신대 이사회, 그리고 동료 및 선배 신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 왔다”며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자신의 신학적 문제점을 사과하고 수정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학교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학교 측은 “그러나 박 교수는 그 후 본인의 신학적 입장을 담아서 출판한 논문에서 자신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옹호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싸잡아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SNS에 올리므로써 자신의 기존 학문적 입장이 변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08회 총회의 ‘신학정체성 선언문’ 내용은?

총회 신학부, 22일 세곡교회서 ‘교회와 신학 세미나’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예장 합동) 신학부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세곡교회(박익서 목사)에서 108회 신학부 교회와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신학부 서기 박익서 목사의 인도로, 신학부 총무 성경진 목사의 기도, 신학부 회계 이원희 목사의 성경봉독, 동서울노회장 강문진 목사(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의 설교, 신학부장 송유하 목사의 환영사, 축사, 송유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세미나에서 김길성 교수(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 초안 작성위원장)가 ‘신학정체성 선언문(2023년)의 배경과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신학정체성 선언문의 구성

먼저, 김길성 교수는 “예장 합동 제108회 총회에서 교단 신학과 신앙의 정수가 담긴 신학정체성 선언문 및 해설이 채택되었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서는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이다. 제108회 총회에서 채택된 신학정체성 선언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하고, 그 기초 위에 선언문을 작성하고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신학정체성 선언문의 구성은 첫째, 우리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서에 기초하여 신학정체성 선언문(2023년)

이 작성되고 채택되었다”며 “서문에 우리 교회가 채택한 공적인 신앙고백서로,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성경 대요리문답, 성경 소요리문답)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에서 채택된 신학정체성 선언문은 서문 외에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 선언문 해설이 실려 있다”며 “셋째로 역사적 개혁신학을 우리교회의 신학 밝히고 있고, 넷째로 선언문은 우리가 지켜온 역사적 신앙고백을 더 명확히 하고 쉬운 진술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다섯째로 선언문 순서는 종교개혁자 칼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헤르만 반빙크, 루이스 벨코프, 박형룡 박사 등의 신학 체계에 맞추어 제1장 성경으로 시작하고, 제2장 최후심판으로 끝난다”며 “마지막 여섯째로 선언문에는 지역교회에 속한 신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신자와 교회에 속한 사회와 국가와 창조세계에서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다”고 했다.

◆신학정체성 선언문의 내용

그는 “제1장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임을 선언하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특히



강문진 목사 김길성 교수

성경의 해석은 역사적언어적신학적 해석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목회자신학자 및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해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2장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영원히 삼위로 계신다고 명시하고,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명시하고 있다”며 “제3장 사람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육 통일체임을 명시하고, 동시에 첫 사람 아담이 범죄 함으로 온 인류는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범죄 했으나, 은혜 연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은 권세로부터 구원받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4장 종보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죄와 죽은 권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명시하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 종보자이시며, 지금도 왕선지자-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심을 명시했고, 제5장 구원에서,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

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명시했다”며 “제6장 교회에서, 참되고 바른 교회는 말씀-성례-구원징이 신실하게 집행되는 교회를 명시하고, 믿는 자들로 구성된 보편적인 무형교회는 현재 안에서 제도를 갖춘 유형교회로 나타난다고 명시하여, 지상에서 유형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제7장 은혜의 수단에서, 은혜의 수단(방편)으로, 말씀 성례, 기도를 명시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임을 명시했다”며 “그리고 제8장 신자의 책임에서, 모든 신자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예배와 전교, 봉사, 참여하여 자신이 속한 교회의 차이를 따르고 성례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9장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종교다원주의적 사조와 초기술사회에 따른 세속화,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다양한 윤리적 도전이 맞서 우리가 견지해 온 신학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법에 반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또한 낙태와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승용의 선물이지만 위상화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고 했다.

또 “제10장 교회와 국가에서, 각각 하



제108회 총회 신학부 교회와 신학 세미나 진행 사진. ©장요한 기자

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와 국가는 상호 존중함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교회가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 교회 대표들의 회의를 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제11장 창조세계에서, 전 지구적이고 사회적 이슈인 지구 온난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질병,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 신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믿는 자는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동시에 보존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지혜로운 청지기적 책임을 명시했다”고 했다.

더불어 “제12장 최후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개인과 우주의 종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명시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 때에 천국에서 누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과 지옥에서 당할 그리스도 밖에서의 영원한 벌을 명시했다”며 “또한 우리 교회의 헌법에는 부록 부분에, 신학정체성 선언문에 이어 신학정체성 선언문 해설이 함께 실려 있다. 정제된 선언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

게 해설하고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구절이 담겨 있어서, 특히 교회와 주일학교 교육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신학정체성 선언문을 통해 여러 질문들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며, 역사적 개혁신학의 틀 안에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창조세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대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 신학정체성 선언문이 우리 세대와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교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세미나는 ▲이종인 교수(총신대, 총회신학정체성위원회 위원장)가 ‘우리 교단 신학정체성 선언문 작성 과정과 향후 활용 방안’ ▲장재 교수(갈변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난해용어 고찰’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한편, 교회와 신학 세미나 2차는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 대전 세마리교회(양현식 목사)에서, 3차는 오는 7월 1일 제주도 동홍교회(박창진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요한 기자

강남에서 20분대!
과천 옆 호텔식 실버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롯데타워, 청계산,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롯데쇼핑몰(예정), 백운호수, 백운호수역(가칭) 신설 예정, 과천봉담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모락산, 청계IC

PRUGIO

경 **의왕** (백운호수역) - 인덕원-과천-강남 **축**

※출처: 경기도청도시계획(26-35) 보도자료

호텔형 생활 서비스와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

365일 식사 서비스, 메디컬 케어 서비스, 하우스 키팅 서비스, 문화·체험 클래스

3,500여평 초대형 커뮤니티

총 536세대 **1577-5052**

설치자 겸 임대인: M+ 엠디엠플러스, 대림사무신박사: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대우건설